

## 인문학연구원 제4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다양한 시각과 해석으로 ‘주체’의 문제 논의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12월 10일(토)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김남주기념홀에서 <다성적 주체론 모색>이라는 주제로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의 2022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의 2단계 2년차 주제인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학술대회는 Uma Krishnan 교수(미국 켄트주립대)의 기조 강연 『Using polyphonic subjective voices to create global solidarity』을 시작으로 전체 3개의 세션으로 마련되었다. 제1세션은 <저항정치적 주체성>이란 주제로 Karl Villamea 교수(필리핀, 실리만대)가 『Deep Solidarity and Queer Life : Ethics and Politics in the Margins』, 진태원 교수(성공회대)가 『스피노자, 마르크스와 함께 을의 민주주의를 사고하다』를 발표했고, 제2세션은 <퀴어 주체성>이란 주제로 Adam Braun 교수(미국, 캘리포니아 루터란대)가 『Rethinking Badiou's Paul: Subjectivity, Jewishness, and PTSD』, 정미선 HK



연구교수(전남대)가 『레즈비언다움과 협상하기-동시대 한국 레즈비언 소설의 친밀성 수행을 중심으로』, 한의승 교수(전남대)가 『여성의 주체되기와 살아남기-방한립전』을 중심으로 발표했고, 마지막 제3세션은 <포스트휴먼 주체성>이란 주제로 황정아 교수(한림대)가 『포스트휴먼과 '인간-되기』, 김지은 교

수(경희대)가 『박쥐와의 키스 : '다중공동체'로 '이중죽음' 넘어서기』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개별 지정 토론을 통해 다성적 주체론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펼쳐졌으며, 이후 추가 보충이 필요한 내용에 관해 발표와 토론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하였다.

##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부산에서 2단계 2차년도 동계 워크숍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은 2단계 2차년도 동계 워크숍을 2023년 1월 30일(월)~2월 1일(수)에 걸쳐 부산에서 원장, 일반연구원, HK+교원, 연구보조원, 행정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매년 하계와 동계에 걸쳐 아젠다 및 국가전략 관련 추진 성과 점검과 계획을 사업단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행사로, 올해는 2022년 하반기 팀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와 2023년 월별 세부 일정 및 팀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년에는 인문커뮤니티학대학원 협동과정 개설, 『가족과 커뮤니티』 등재후보지 선정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가족커뮤니티 인문지표 기획총서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

관계편 1-가까운 사이』,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 관계편 2-나와 타자』, 『가족커뮤니티의 개념들 : 관계편 3-함께하는 시간』 발간, 연구총서 『관계적 실천으로서의 가족과 커뮤니티』, 번역총서 『초국화: 경계를 넘

는 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발간, 광주광역시 발산마을 사례연구와 같은 현장 모델 발굴 사업 추진 등 이론과 현장이 망라된 다양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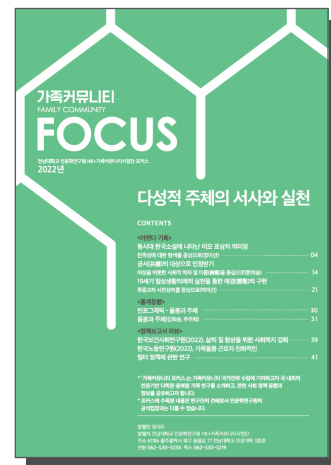
# 인문학연구원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에서 매년 2회(3월, 9월) 발간하는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가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학술지 평가는 학술지의 관리 체계 확보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학술지 등재 제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술지의 등급이 부여되는데, 인문학연구원 기관지인 『가족과 커뮤니티』는 그동안 일반학술지였으나 이번 평가를 통해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인문학연구원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족 문화와 열린 공동체의 가치를 탐색하는 ‘가족커뮤니티’를 주제로 한 학술지로 2022년 9월호(통권 6호)까지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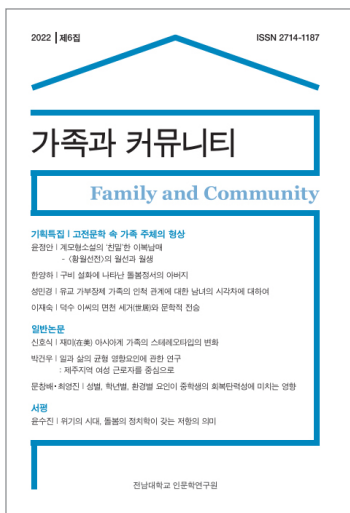
연구의 주요 키워드로 삼고 있는 ‘가족과 커뮤니티’는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열린 공동체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인문학연구원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함과 동시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승된 가족의 유구한 역사와 인문적 자산을 재의미화함으로써, 도래하는 열린 가족의 다성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전문지이자 통합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문학연구원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가족커뮤니티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킴과 동시에 가족커뮤니티 연구의 방향을 융복합적으로 모색하는 데 힘쓰고 있다.



## 『가족커뮤니티포커스』 7호 발간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가족커뮤니티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국내외의 인문기반 다학문, 융복합 가족 연구를 소개하고 관련 사회 정책 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는 『가족커뮤니티포커스』 7호를 발간하였다.

7호는 「다성적 주체의 서사와 실천」이라는 아젠다와 관련된 기획 글 3편, 돌봄과 주체를 중심으로 한 〈통계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정책보고서 리뷰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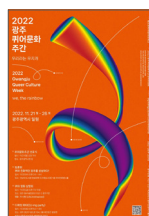


## 국가전략 포럼 및 학술대회 참가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지역사회연계 포럼 및 공동주최의 형식으로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23일(수)에는 전남대학교 도서관 정보마루 1층 우미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퀴어×지역×청년: 퀴어 친화적인 광주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하였다.

2022년 12월 3일(토)에는 한국가족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부산대 SSK느린 재단 연구팀이 「가족 다양성의 확대와 새로운 가족 인식」이란 주제로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의 〈4분과 가족커뮤니티와 가족윤리〉 세션을 맡아 가족 다양성, 가족 윤리에 대한 인문학적 시도를 발표하였다.



- ### 연구원 학술동정
- #### 논문게재
- ▶ 김경학, 「남아시아인의 걸프 지역 이주와 걸프국가의 이민정책: 인도 케랄라인의 아랍에미리트 이주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2권 3호, 아시아연구소, 2022.12.31.
  - ▶ 김병인, 「음묘왜변의 제주성전투 연구: 사간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5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22.11.30.
  - ▶ 이정란, 「고려 중기 官服에 투영된 차등적 위계구조와 賜服의 정치적 의미」, 『韓國史學報』 89호, 고려사학회, 2022.11.30.
  - ▶ 조경순, 「AI 학습용 말뚝치의 화용론적 특성과 대화 분석 연구」, 『배달말』 71호, 배달말학회, 2022.12.31.
  - ▶ 조경순, 「광주 지역어 '그러-' 계열 어휘에 대한 미론적 연구」, 『호남학』 72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22.12.31.
  - ▶ 한의승, 「嶺南 南人 散文 연구를 위한 試論적 접근 - 雜著 수록 散文을 중심으로 -」, 『국학연구론총』 30호, 태민국학연구원, 2022.12.30.
  - ▶ 한의승, 「여성의 주체되기와 살아남기 -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89호, 동양고전학회, 2022.12.31.